

서론 평화파괴의 장본인은 누구인가

《력사상 가장 역겨운 권력다툼》

— 남조선언론들과 외신들이 비난 —

최근 남조선과 그 주변지역에서 군사연습들이 자주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한다.

대표적인 것이 1월 판도린군수역에서 진행된 다국적연합군합동수습훈련과 다국적수중수리훈련, 지난해 11월부터 12월말사이 남조선에서 벌어진 미해군독수부대와 남조선해군독수부대의 호환기해상 및 지상명예준비태세훈련이다.

2월 20일부터 3월 5일까지는 타이완해역에서 미국주도의 다국적연합해상훈련 《코브라 골드》가 진행되는데 남조선도 참가할 것이라고 한다.

얼마전 일본은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미군과 함께 지상, 해상, 공중 등 전방위적인 분야에서 40차이상의 실기동훈련을 진행한 내용과 관련사진들을 공개하였다고 하는데 이것 역시 심상치 않은 일이다.

한편 남조선미국일본사이에 《국방장관전화대화》, 외교장관회의 등이 연이어 벌어지고 여기에서는 그 누구의 《위협》, 《도발》에 대비한 《한미일 3자공조》 문제가 논의되었다고 한다.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벌어지는 각종 전쟁연습과 불순한 모의관들은 남조선미국일본사이의 군사적, 정치적결핵이 더욱 강화되고있음을 웅변해주는 실례들이다.

그 무분별하고 무모한 책동들

의 첫번째 목표가 다름아닌 우리 공화국이라는것은 두말할것 없었다.

최근에 남조선미국동맹, 미일동맹의 강화가 《한미일3자공조》강화로 확대, 본격화되고있는것은 무엇때문이었는가.

질질적으로 강화되고있는 공화국의 자위적역량이 그들의 침략 야망실현에 무거운 부담으로 되고 있으며 적대세력들의 대조선적대시정책, 아시아태평양전략이 물거품으로 될수 있다는 불안과 조바심이 그만큼 증대되고있다는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남조선과 일본을 대조선전략, 아시아태평양전략 실현의 돌격대, 하수인으로 더 거세게 얽어박고 있는 미국의 흉심을 드러낸것이라고도 봐야 할것이다.

이에 대해 남조선언론 《민플러스》는 《한미일 삼각공조 동맹이 한미동맹과 다른것은 《한국》과 일본(자

위대)를 통해서 운용하려는것이다. 말이 좋아 《한미일포괄적동맹협력체》이지 결국 《한국》이 미국의 전쟁도구로 전락한다는 의미이다.》라고 평하였다.

반공화국적대세력들의 무모하고 무분별한 전쟁책동과 정치적사적결핵강화는 공화국이 자위적

역제력을 더욱 강화해나가는것이 얼마나 정당한가를 다시금 확증해준다.

아울러 조선반도와 지역,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장본인이 누구인가를 명백히 보여준다.

정 필

역제력을 더욱 강화해나가는것이 얼마나 정당한가를 다시금 확증해준다.

아울러 조선반도와 지역,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장본인이 누구인가를 명백히 보여준다.

정 필



또다시 드러난 정치시정배의 추악한 본색

남조선에서 야당의 《대통령》선거후보로 나선 윤석열이 도덕적결핵과 정치보복성망언으로 하여 사회적비난거리로 되고있다고 한다.

얼마전 윤석열이 구두를 신은채로 맞은편 의자에 발을 올려놓고 거들먹거린것이 찍힌 사진이 인터넷에 공개되어 사회적물의를 빚어냈다.

그렇지 않아도 대중앞에서 다리를 짚 벌리는 《적별남》, 광주시민들의 피로 두손을 짚은 살인광, 군사특재자를 미화하고도 사회를 요구하는 민심이 보라는듯 개에게 사과를 주는 사진으로

대치한 《개사과》론란, 손바닥에 《王》(임금 왕)을 써놓은 선거운동용 벌린 《왕》자론란, 지어 자기편 사람들도 《별치》, 《고고어》로 멸시하는 망언, 망동들로 하여 남조선정치로부터 조소와 비난을 받아온 윤석열이다.

그러한 망동이 이제는 도를 넘어 사람들이 않는 좌석에 구두발을 올려놓는 망탕정도 서슴없이 하게 된것이다.

시민들은 《설치류》나 같고 국민은 발밑에 놓여야 한다는 《국민의힘》것들의 반인민적인 관점과 도덕적저열

성을 그대로 받아먹은것이라고 봐야 할것이다.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과 《정적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육지였다 죽지 반박하였다고 한다.

윤석열의 발언은 가족이나 혼란스러운 남조선정국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이 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과 《검찰공화국》창설야욕을 날발이 드러냈다. 윤석열이 집권하면 보복정치, 조국독재가 판무하고 사회적불행이 뒤따를것이다. 이제 조국독재도 처벌당하고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기 위해 건물옥상에 숨어들어 유인물을 뿌려야 하는 그런 폭압정치의 나라, 공안정치의 나라로 되돌아갈것이다. 민주개혁세력에 대한 피비린내나는 칼출선전조고이고 비난하면서 윤석열이 국민앞에 사죄하고 사퇴하라고 강력히 요구하고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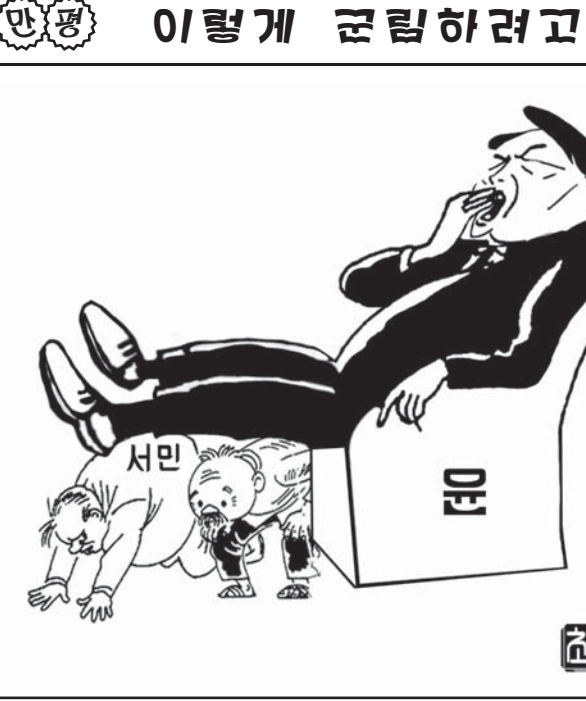
남조선당국도 윤석열이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검찰총장제직때에 이 《정부》의 적폐를 알면서도 못본척 했다는 말인가, 아니면 없는 적폐를 기획사정으로 만들어내겠다는것인가라고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고 하면서 강경대응해나서고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의힘》은 《도적이 제발 저런격》, 《윤석열을 흠집내려는

명백한 선거개입》이라고 하면서 윤석열을 두둔해나서고있다고 한다.

남조선언론들은 《1일1방언》후보인 윤석열이 이번 《적폐청산》이라는 발언을 한것으로 하여 남조선정국은 진보세력 대 보수세력의 대결구도가 더욱 뚜렷해지고 저저마다 세력결집과 상대방에 대한 비방전이 거세지면서 정치적대립과 갈등이 더욱 격화되고있다고 평하고있다.

이러 보수언론들까지도 윤석열을 향해 《사실상 정치보복이다》, 《불필요한 일이



《자영업비서관》은 커녕 행정판도 만나지 못하고 왔다. 삭발한 머리 카락도 전할 못했다. 차마 버릴수 없어서 그냥 가져왔다. 이것은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남조선당국과 정치권을 단죄하는 자영업자들의 분노에 찬 목소리이다.

《대규모 선제적지원》, 《상인들, 자영업자들, 맘출려 자기 노력으로 돈버는 사람들, 이런분들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정당》, 《긴급재정명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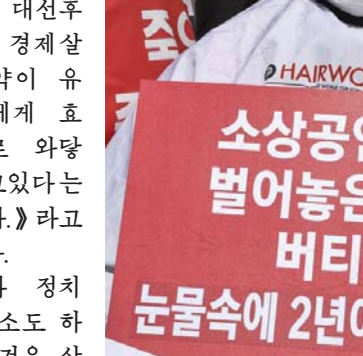
남조선의 한 언론은 《여야 대선후보들이 일제히 추가경제에산안을 편성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쏟아내고있지만 어느 후보도 경제를 활성화할것이란 것만은 주지 못하는 모습이다. 대선후보들의 경제살리기공약이 유권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와닿지 않고있다는 분석이다.》라고 평하였다.

당국과 정치권에 호소도 하고 눈물겨운 사

발식도 벌려보았으나 앞날이 없고 살길이 보이지 않는것이 남조선의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처지이다.

《알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본사기자 황금숙



《서울과 그 주변도시, 14채의 집이 있다. 다섯가구가 과거에 거쳐 왔거나 지금 살고있는 세집이다. 삶을 갉아먹는다식게 엉망인 집도 있었고 그마저 인젠 내몰릴지 몰라 불안한 집도 있었다.》

《세상이 《집》에 관해 말하는동안 그 세 집들이 주인공자리에 선 적은 별로 없다. 《내 집》은 아니며 돈이 되는 집도 아니다. 《전세대란》, 《월세대란》 하며 이름붙여주는 순간조차 매매시장 불균형의 부수적인 피해자로 불려나온 집이다. 집이란 무릇 내 집마련에 실패했거나 아직은 도전중인 사람들이 반드시 마련, 장만해야 하는 공간으로 여기는 표현에 의

심한 점이 없다. 세입자구의 바람은 명백히 행복해지는것이다. 안정적으로 집에 사는 것이다. 집을 살수 있는지, 집이 얼마인지, 얼마가 될것인지의 생각이 없다. 후조차 없다. 서러웠다. 여기는 다만 사다리의 층락이고

《남의 집, 나의 집》이라는 소유권의 꿈으로 짜인 이 세계가 오히려 어색하게 느껴진다.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자가소유로, 사다리를 한칸씩 오르라는 상상속그림은 정부가 바뀌어도 그대로다. 사다리의 종착점은 여전히 《내 집》이다. 《내 집》을 생각하니

《보국대》 등의 첫째가는 선배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창세기명》을 하지 않은 사람의 자녀에 대하여서는 학교의 입학과 진학을 허락하지 않았으며 《창세기명》한 사람에게 호적에 가입하였는가 하면 《창세기명》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물자《배급》대상에서 제외하고 모든 일자리에 채용하지 않았다.

심지어 일제는 제정된 기간내에 《창세기명》을 하지 않으면 제멋대로 성과 이름을 고쳐놓을수 있도록 악법을 만들어놓고 수많은 조선사람들의 성과 이름을 본인의 의사도 묻지 않고 협박의 방법으로 일본식으로 위조하는 행위도 서슴없이 감행하였으며 조선사람들이 일단 《창세기명》을 한 후에는 조선식의 성명제로 되돌아갈수 없게 하였다.



1980년대 서울땅이 아파트로 덮여가면서 개발지역에서 펼쳐진 격렬한 철거민투쟁은 《주거생존권보장》을 요구했다. 내 집을 소유하게 해달라는 운동은 아니다. 서러움을 덜어내라는 요구다. 주택소유통계를 보면 주택을 소유한 30대는 2017년 180만 5000명에서 2020년 168만명으로 오히려 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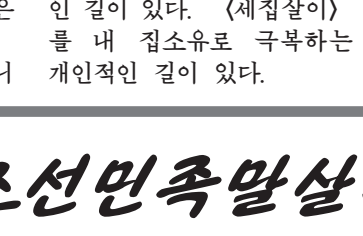
가파른 집값상승, 금리인상 분위기에 《내 집마련》을 꿈꾸수 있는이는 점점 줄어든다. 이미 서울에 아파트를 소유하지 않았다면 새로 그 틈에 끼는건 막대한 위험을 짊어지는 일이다. 소유가 다수의 꿈이기 어렵다. 《남조선잡지》《한겨레21》 1월 31일호에서 전제)

《일본사람》이 되는 일이 생겨났는가 하면 공부하는 자식을 퇴학시키겠다는 위협을 받고 《창세기명》을 한 아버지가 조상에게 진 《죄》를 벗을 길 없어 돌을 안고 무릎에 빠져죽는 사건이 벌어지는 등 비극적사건들이 수없이 발생하였다. 《창세기명》은 일제가 감행한 전대미문의 조선민족말살정책이었다. 본사기자 주광일

《창세기명》을 강요한 조선총독 미야마 지로

《창세기명》을 강요한 조선총독 미야마 지로

《창세기명》을 강요한 조선총독 미야마 지로



《창세기명》을 강요한 조선총독 미야마 지로

《창세기명》을 강요한 조선총독 미야마 지로



《창세기명》을 강요한 조선총독 미야마 지로